

# 제천 화재현장 인명 구한 시민 'LG의인상'

## LG복지재단

이호영·김종수씨 등 6명 선정

LG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화재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나선 시민들에게 'LG의인상'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양섭(53), 이기현(29), 이호영(43), 이상화(71)씨, 이재혁(16)군, 김종수(64)씨 등은 불길이 치솟고 건물이 연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부상을 입으면서도 인명을 구조했다. 건물 외벽 청소 업체 대표인 이양섭씨는 지인으로부터 '큰 불이 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화재 현장에 달려갔다. 건물 8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을 발견하고 아들 이기현씨를 통해 크레인 차량을 가져온 뒤 8층 난간에 바구니를 대 시민 3명을 구조했다.



이호영씨 김종수씨 /LG

41개 레미콘 공장에 소속된 1400여대의 레미콘 믹서트럭에 캠페인 엠블럼과 슬로건, 기부 방법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캠페인을 홍보한다. 또 물류계열사인 한국통운의 화물트럭 400여대도 동참하는 등 총 2000여대의 차량이 전국을 누비며 나눔캠페인을 알린다.

손자 이재혁군은 이호영 관장의 대피 지시에 따라 건물을 빠져나가다 2층 계단에서 불길이 치솟아 내려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여성들을 발견했다. 이들은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계단 창문틀을 뜯어냈다. 이후 15명을 무사히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뒤 기절했다.

3층 남성 사우나 이발소에 근무하던 김종수씨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수면실과 탈의실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찾아 비상계단으로 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러한 구조 과정에서 이호영, 이상화씨, 이재혁군, 김종수씨 등 4명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화상과 골절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LG복지재단은 2015년 'LG 의인상'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총 64명을 선정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코오롱그룹 신입사원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신학기 용품 키트를 제작·전달하는 '드림팩 기부천사 캠페인'으로 새해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코오롱사회봉사단은 9일 기아대책과 함께 용인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서 그룹 공채 신입사원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팩 기부천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창희 코오롱사회봉사단 총단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코오롱 신입사원들이 신학기 용품 키트 '드림팩'을 제작하고 있다. /코오롱



컴투스와 굿네이버스 관계자들이 '컴투스 글로벌 IT교실' 4호 건립을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컴투스

## 유진그룹 '사랑의 온도탑' 온도 올리기 나섰다

유진그룹 전 계열사가 '사랑의 온도탑' 홍보대사로 나선다.

유진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를 올리기 위해 모든 계열사가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연말 연시에 이웃돕기 집중모금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73일 동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월9일 현재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에 못미치는 86.9도에 머물러 있다. 유진그룹은 먼저 유진기업과 동양이 전국

41개 레미콘 공장에 소속된 1400여대의 레미콘 믹서트럭에 캠페인 엠블럼과 슬로건, 기부 방법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캠페인을 홍보한다.

또 물류계열사인 한국통운의 화물트럭 400여대도 동참하는 등 총 2000여대의 차량이 전국을 누비며 나눔캠페인을 알린다.

홈데이, 유진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 나눔로또, 푸른솔GC 등은 고객이 방문하는 곳과 직원들의 근무공간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을 게시한다. 유진엠플러스는 어린이 뮤지컬로 인기가 높은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



유진기업, 동양, 한국통운 등 유진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사랑의 온도탑'을 홍보하기 위해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나눔을 약속하고 있다. /유진기업

라' 공연장에 나눔의 기쁨을 알리는 홍보물 전시를 통해 캠페인을 가족 관객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컴투스 '글로벌 IT교실' 건립기금 전달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컴투스 글로벌 IT교실' 건립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사업 추진을 협약하고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컴투스 글로벌 IT교실은 부족한 인프라로 충분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세계 곳곳의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IT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다. 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세운 1호를 시작으로 남미 니카라과에 2호 건립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금천구 난곡중학교에 3호를 조성했다.

컴투스는 이 같은 혜택을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컴투스 글로벌 IT교실 4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신점[神占] 운세** 1월 10일 (음 11월 24일) [www.healingunse.com](http://www.healingunse.com) 060-800-8877

<p><b> 쥐 </b> 60년생 평화로운 중에 항상 함정이 있는 법입니다. 72년생 건강이 최고입니다. 84년생 잘해주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세요. 96년생 이성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p>	<p><b> 말 </b> 54년생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같습니다. 66년생 뒷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7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90년생 너무 어렵다고 걱정 마세요.</p>
<p><b> 소 </b> 61년생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73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85년생 실행에 옮기면 큰 성과가 있습니다. 97년생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p>	<p><b> 양 </b> 55년생 직장운과 명예운이 아주 좋습니다. 67년생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79년생 욕심은 실패의 지름길인 것을 명심하세요. 91년생 휴식을 취하며 일을 정리하도록 하세요.</p>
<p><b> 호랑이 </b> 50년생 언제나 말 실수를 조심하세요. 62년생 시기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74년생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86년생 늘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의 대하세요.</p>	<p><b> 원숭이 </b> 56년생 아래 사람들과 관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세요. 68년생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최우선책입니다. 80년생 소원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집니다. 92년생 아주 무난한 하루가 됩니다.</p>
<p><b> 토끼 </b> 51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63년생 각별히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같습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때로는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습니다.</p>	<p><b> 닭 </b> 57년생 신경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69년생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같습니다. 81년생 조그마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93년생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 받습니다.</p>
<p><b> 돼지 </b> 52년생 구설수를 항상 조심하세요. 64년생 흥한 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76년생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88년생 친한 친구와 갈등이 우려됩니다.</p>	<p><b> 개 </b> 58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70년생 쉽게 들어오는 돈을 쉽게 내 갑니다. 82년생 오늘은 빨간색이 귀하게 행운의 색입니다. 94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어라도 밀고 나가세요.</p>
<p><b> 뱀 </b> 53년생 대형 사고가 우려되니 조심하세요. 65년생 주변의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77년생 귀인이 귀하를 찾고 있습니다. 89년생 고집을 버리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세요.</p>	<p><b> 돼지 </b> 59년생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집니다. 71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83년생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5년생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p>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4	3	9	5	6		
				1				
9			2		4			8
2	6		7		5			4
8	4		9		2		7	6
1	7		4		2			3
5			6		7			1
				8				
		1	5	3	9	8		

				8	7		2	6
	1		6		2			8
			1			8		4
4	6							9
3		1			4			
8			2		7			4
		4	9		1	6		

**스도쿠 정답**

4	9	8	6	5	1	7	2	3
5	2	1	8	7	6	4	9	8
1	7	6	2	9	8	5	1	4
8	5	2	9	7	8	1	5	6
9	1	7	5	6	4	8	3	2
7	8	5	1	2	9	6	7	4
8	4	7	9	2	5	1	6	3
6	5	7	8	1	2	9	4	8
2	1	9	5	6	7	8	3	1
9	2	6	8	5	7	4	1	3
2	8	5	9	1	6	7	4	3
1	7	4	6	2	9	5	8	1
5	2	9	7	8	1	6	4	3
4	6	1	5	2	9	8	7	3
7	8	6	9	1	5	2	4	3
8	5	7	2	9	1	6	4	3
6	9	2	1	8	7	5	4	3
4	1	5	7	6	2	8	9	1

문제 제공 =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말은 운세의 씨앗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용하는 지하철은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이다. 객차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 행동과 말은 그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누구나 언행을 조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때때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옆의 사람들이 듣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듣기 거북할 정도의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서슴없이 욕설을 내뿜는 사람도 때때로 볼 수 있다. 서너 명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할 거친 말들을 그대로 쏟아 낸다. 휴대전화를 들고 마구 퍼부어대는 상스러운 말들은 지하철에서 만나는 대표적 공해 중의 하나이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되거나 평판이 만들어지는 판단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운세가 좋기를 바란다. 그런데 마음만 그렇다. 실제 행동은 나빠지기 위해 애쓰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운세가 좋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운세가 좋아지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나의 운세가 좋아지려면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아져야 한다. "입이 쓰레기야." "나쁜 사람이 라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주위에서 나에게 대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좋지 않은 평판이 넘친다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당연히 좋은 운세도 나를 피해간다. 반대로 주변의 평판이 좋아지면 운세는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흐름이 바뀐다.

자영업이라면 워런 주문도 들어오고 입소문이 손님을 끌고 온다. 직장인은 긍정적인 말 공손한 말을 쓰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업무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닌 것이다. 사람의 운세는 꼭 하늘에만 달렸다고 할 수 없지만 운세는 일정부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운세를 좋게 만드는 쉬운 방법은 말을 곱게 하고 가려서 하는 것이다. 쓰는 말이 고와지면 스스로도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평판이 좋아진다. 가까이 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자연스럽게 옆에 가고 싶고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진다. 그렇게 좋은 기운이 감싸고 있으면 복을 불러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말 한마디를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은 운세의 씨앗이 된다.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운세를 바꾸어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